

# 이건희 병상 5년째... 경영환경 불안에 글로벌 도약 발목

의식 없지만 안정적 상태 유지  
반도체 한파, 글로벌시장 침체  
이재용 부회장 오너 리스크 등  
그룹 '내외외환'... 과제 산적



(작은 사진) 2011년 4월 삼성 서초사옥에 출근하고 있는 이건희 삼성 회장 모습.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병상에 누운 지 오는 10일로 만 5년을 맞는다. 이건희 회장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모습. /연합뉴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몸져누운지 만으로 5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기는 했지만, 경영 안정성은 여전히 위기 상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까지도 삼성서울병원 VIP 병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휠체어에서 재활 치료와 자극 요법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았었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오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전언이다. 부인인 홍라희 여사와 이재용 부회장,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 삼성복

지재단 이서현 이사장 등 자녀들도 수시로 병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 회장 외병 중에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2014년 206조원이었던 매출액은 2018년 244조원으로 훌

쩍 뛰었다. 이 회장이 일으켜 세운 반도체 사업은 메모리 부문 압도적인 초격차를 확고히했다. 지난해 수출에서 20% 비중을 차지할 만큼 크게 성장했다.

앞으로는 비메모리 부문에서도 세계 최초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반도체 비전 2030을 통해 10년여간 133조원을 쏟아부었다고 했다.

삼성은 이를 통해 국내 팹리스와 관련 장비 업체 등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전문인력 1만 5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등 수십만명 고용 효과를 창출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앞장섰다.

그 밖에 사업들도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모바일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불황인 가운데에서도 갤럭시 폴드 등을 출시하면서 팔로워가 아닌 리더 브랜드로 거듭났다. 다른 계열사들도 꾸준히 높은 실적을 거두며 삼성 이름을 드높였다.

그러나 앞으로도 삼성이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글로벌 시장 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당장 주 수익원인 메모리 반도체에

문제가 생겼다. D램과 낸드플래시 수요 감소로 가격 폭락 현상이 일어난 것. 이는 올해 말까지 지속되면서 국내 경제에 적잖은 위협이 될 전망이다.

갤럭시 폴드 품질 결함 논란과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가전 시장 침체 등 악재도 심각하다.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사업도 외부적 요인에 어깨를 움추리고 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의혹으로 꾸준히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바이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삼성만은 바이오로직스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영 안정성도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 회장이 쓰러진 후 삼성을 이끌어온 이재용 부회장이 조만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다. 세계는 이 부회장이 자리를 비우면 자칫 투자와 경제 반등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한부모 여성 '희망가게' 창업주 모집

### 아모레퍼시픽-아름다운재단

아모레퍼시픽과 아름다운재단이 함께하는 한부모 여성 창업 대출 지원 사업 '희망가게'가 오는 6월 7일까지 2019년도 2차 창업주를 공개 모집한다.

'희망가게'는 한부모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Micro Credit)' 사업이다. 창업을 통해 한

부모 여성 스스로가 당당한 주인이 돼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한다.

공모를 통해 선발되는 희망가게 창업 대상자에게는 보증금을 포함해 최대 4000만 원의 창업자금이 상환금리 연 1%로 제공된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조현준 회장, 유럽 아웃도어시장 정조준

(호성)

### 호성, '퍼포먼스 데이즈' 참가 친환경·기능성 소재로 본격 공략

호성이 유럽 아웃도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호성티앤씨는 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퍼포먼스 데이즈'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퍼포먼스 데이즈는 기능성 소재를 소개하는 행사로 2008년부터 이어졌다. 올해에도 29개국 297개사가 참가해 기술 우위를 뽐낸다.

호성티앤씨도 올해 처음 부스를 마련했다. 아웃도어의류 시장을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호성티앤씨 부스는 전시회 테마 '기능성의 아름다움'에 맞춰 다양한 기능을 선보였다. 시원한 느낌을 주는 냉감성과 자외선 차단, 땀을 빠르게 흡수해 건조하는 흡습속건성, 땀냄새 중화 등이다.

친환경 트렌드에도 맞췄다. 페트병



호성 퍼포먼스 데이즈 부스.

/호성

을 이용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원사 리젠과 공정 폐기물을 재가공한 리사이클 나일론 원사 마이판 리젠 등이다.

이번 전시회는 호성 조현준 회장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 회장은 취임 후 고객과 만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확대하라는 등 입장을 지속해왔다.

조현준 회장은 "최근의 고객들은 기

능과 디자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찾는다. 또한 친환경적인 제품 구매로 '가치'를 소비하는 경험을 갖길 바란다"며 "호성티앤씨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업계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 아시아나항공, 국가유공자 등 국내선 반값

'호국보훈의 달' 맞이 6월 특별 할인

아시아나항공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유공자 및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 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보훈기간 동

안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 대상자 본인과,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는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이 적용된다. /정연우 기자 ywj964@

## 편의·친환경... SK에너지, '미래형 주유소'로 혁신 이끈다

'상금 2000만원' 건축디자인 공모전

SK에너지가 친환경 미래형 주유소 도입을 통해 혁신을 이끈다.

SK에너지는 자사가 운영하는 주유소를 고객 니즈와 산업 트렌드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콘셉트의 미래형 주유소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외부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모아 진행하기 위해 8일부터 'SK주유소 건축디자인 공모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유소 혁신의 방향은 고객친화와 친환경이다. 주유소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창출이다.

SK에너지는 주유소 혁신의 방향으로 ▲고객 편의 ▲기술 ▲친환경 ▲주



SK 주유소 예시.

변과의 조화를 키워드로 주유소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4가지 키워드는 이번 공모전에도 그대로 투영돼, 고객 친화적인 동선 및 공간 설계, 주유소 공간을 활용한 사업기회 발굴, 기술 기반 서비스 업그레이드, 신에너

지와 재활용, 지역 특성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녹여낸다는 계획이다.

참가 희망자는 부지와 상권 측면에서 각각의 특색을 가진 평촌신도시 주유소, 신길동 주유소, 장안강 주유소 등 SK에너지가 제시한 주유소 중 한 곳을 모델로 맞춤형 설계를 진행하고 설계 기획서와 설계 개념도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6월 16일까지이며, 대학교 교수진으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회가 창의성, 실현가능성, 가치 창출 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총 상금은 2000만원, 대상 상금은 1000만원이다. 수상작은 SK주유소 디자인에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양성문 기자 ysw@

## SSD 1GB당 0.1달러로 하락?... 반등 언제쯤

### 디램익스체인지 보고서

올해 말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가격이 급락할 전망이다. 반도체 시장 수요 악화가 이어진다는 얘기지만,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시장 잠식이 빨라지면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는 올해말 1TB와 512GB SSD 가격이 1GB당 0.1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2분기 SSD 평균 계약 가격은 전년비 SATA 제품이 15~26%, PCIe 제품이 16~37% 떨어진 상태다. 낸드 가격 하락이 올해 말까지 지속된다는 얘기가. 공급사들이 64~72단 제품을 확대하는 등 공급 과잉 현상이 원인으로 꼽혔다.

D램익스체인지는 낸드 시장이 하반기에는 성수기와 신제품 출시 및 생산 조절이 이어지면서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SSD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김재용 기자